

● ISSUE REPORT

코로나19 현상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Ⅱ)



느린 독서(Slow Reading): 인포데믹으로서의 코로나19에 대응하며

—
이동신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느린 독서(Slow Reading): 인포데믹으로서의 코로나19에 대응하며

● 이동신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코로나19로 인해 전대미문의 상황을 겪고 있는 2020년 상반기를 지내며 많은 이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이전과 다른 노멀,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비대면수업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상화되면서 그러한 예측을 의심하는 이는 없는 듯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유발된 공포에 대처하는 방식은 이전의 다른 재해와 별다르지 않아 보인다. 원인이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고, 치유나 전망도 불확실하기에 사람들은 종종 근거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근거가 없기에 대상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범위도 알 수가 없다. 이처럼 우연성과 불확정성이 재난에 대한 공포의 특징이다. 이런 특징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특징 탓에 공포에 대한 대처는 대체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브리티ッシュ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마크 샐러(Mark Schaller)는 코로나19에 관한 인터뷰에서 인간의 사회 규범과 제도가 “병을 물리치는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전염병 위기에서 보통은 “관습(conventions)을 좀 더 지키게 되고,” 따라서 사람들은 관습을 어긴 이들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된다고 말한다(Spicer). 이러한 엄격함이 실제로 병의 전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도 말이다. 우연하기에 필연성을 가장한 설명들, 불확실하기에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는 듯이 보이는 해결책들이 쉽사리 힘을 얻는 것이다. 비록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잠시라도 위안을

얻고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대처 방식을 편하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동시에 일시적인 안정에 안주하여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고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일시적인 안정이 누군가의 무고한 희생을 대가로 얻어질 가능성, 즉 공포의 원인으로 임의로 누군가를 지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안정을 찾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로 추후에 논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공포의 원인을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포함한 고대신화나 근대사회 이전의 재난은 희생양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그 공포를 잠재우곤 했다. 역병이나 자연재해 등의 우연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을 신의 분노나 나라 혹은 개인의 운명이라는 필연적 요인으로 일어났다고 설명하면서, 분노를 일으킨 대상이나 그런 운명을 불러온 개인을 사회에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재난을 극복하는 것이다. 즉 재난의 공포가 폭력으로 번지고, 그 폭력의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공포를 해소하고 안정을 되찾는 구조다. 프랑스의 문학평론가이자 인류학적 역사가로 “욕망의 삼각형 이론”과 “희생양 메커니즘”을 정립한 르네 지라르(René Girard 1923–2015)는 이러한 구조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일단 우리가 희생시킬 피해자에 주목하는 순간, 최초로 폭력의 대상으로 정해진 것은 시야에서 사라져간다. 희생의 대체는 어느 정도의 오해를 암시한다. 제도로서의 이 대체의 생명력은 제사(rite)의 기초가 되는 교체를 숨기는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나 절대로 최초의 대상을 완전히 잊어서는 안 된다. 혹은 그 대상에서 대체 피해자로 전이하는 행위를 인식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인식이 없다면 대체는 성공하지 못하고, 희생은 그 효과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5)

지라르에 따르면 희생양을 생성하는 과정은 교묘한 위장과 의도적 오해를 수반한다. 이는 그 과정이 결코 개인에 의해서 진행될 수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희생양을



만드는 과정은 동시에 재난에 대한 개인적 공포를 집단적 의식과 행동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결정되는 과정이라는 의미다.

근대사회 이후에 재난에 대한 과학적인 태도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알리고, 이에 대처하는 능력이 증진되었다는 점에서 지라르가 얘기하는 “오해”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신이나 운명 등과 같은 이유로 희생양을 지정하는 과정은 미신적이기에 과학적 사고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라르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다양한 문화권의 신화와 종교를 비교하며 유사점을 집대성한 『황금가지』의 저자로 유명한 인류학자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James George Frazer)를 지라르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많은 근대의 사상가처럼 프레이저는 종교의 의해 행해지는 모든 추악한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미신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한다. ... 그의 글은 자신이 평생의 대부분을 바쳐 연구했던 광신과 미신에 대한 광신적이고 미신적인 거부나 다름없다.

이러한 이해 방식의 희생적 성격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오늘날 우리가 무지를 없애고자 할 때, 이전보다 더 자주 저항을 맞이할 거라는 것이다. 그런 무지가 지식으로 바뀌는 시기가 왔음에도 말이다. (317-18)

물론 프레이저의 책이 출간된 19세기 말, 심지어는 지라르의 책이 출간된 1970년대에 비해서 재난에 대한 지식의 폭과 깊이가 현재 매우 월등한 것은 사실이다. “무지가 지식으로 바뀌는 시기”가 한참 진행되어 왔기에 “미신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일이 지라르가 말하는 것처럼 “광신적이고 미신적”이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공포에 대처하는 현실은 지라르의 지적이 아직 유효함을 알리는 듯하다.

지라르의 말은 20세기 후반 에이즈가 확산되면서, 그 원인을 동성애자들에게 돌리고 윤리, 정치, 종교라는 이름 아래 혐오와 폭력을 양산했던 과거를 생각해봐도 설득력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후에 사스나 메르스 등의 심각한 전염병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이제 코로나19로 다시 재연되고 있는 듯하다. 이전의 전염병들이 감염률이 높지만 의학적 대응이 빠르게 효과를 얻었거나, 혹은 치사율이 높기에 보균자의 이동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해 코로나19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은 맞다. 치사율은 낮지만 감염률이 월등히 높고, 무증상자가 많기에 감염경로의 역학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점, 변이가 많기에 백신 개발이 힘들다는 점 등은 코로나19가 우연성과 불확정성 시대의 새로운 재난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공포에 대한 대응방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전과 별다르지 않다. 지라르가 얘기했던 방식으로 특정인이나 집단이 재난의 원인이라고 추정하면서 혐오가 극도로 심해지고 폭력적인 대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등장하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나 국내에 등장하는 중국인 혐오를 시작으로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혐오, 대구 등의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는 전염병을 막기 위한 통제와 격리가 그러한 혐오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통제와 격리와 혼재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 재빨리 정리되지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폭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모든 사회가 재난을 반복해서 겪는다는 점에서 희생양에 대한 폭력으로 공포에 대응하는 구조는 역사적 맥락을 가지게 된다. 지라르가 말하는 의도적 오해는 결국 사실의 억압, 폭력에 대한 기억의 억압으로 반복된다. “언캐니”라는 특별한 형태의 공포를 분석하면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억압된 것의 회귀”(The Return of the Repressed)라는 용어로 이를 설명한다. 뭔가 과거의 두려웠던 경험, 혹은 의식이 생성을 위해 제거했던 것에 대한 기억 등이 억압된 상태로 묶여 있다가 의식의 차원으로 되돌아오면서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그러한 공포가 “익숙한”(heimlich) 느낌과 “낯선”(unheimlich) 느낌이 혼재하는 상태라고 말한다. 프로이트가 개인의 심리에 대해서 설명한 용어인 “억압된 것의 회귀”는 사회적, 역사적 차원에서도 차용이 가능하다. 특히 재난의 공포로 희생양을 의도적으로 양산하는 일은 공동체 차원의 기억의 억압이 따라야만 한다. 이는 하나의 사회나 국가가 과거의 과오를 국가적 기억에서 억압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이고, 따라서 억압된 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분출하는 상황은 현사회의 안정성 이면의 위선과 폭력을 역사적



맥락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미국사회에서 코로나19는 경제적, 의료적 혜택의 불균형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그 차이는 바로 인종적 차별의 형태로 분출된다. 즉 미국 현대사회에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흑백갈등이 억압되어 존재하였고, 코로나19는 그러한 갈등의 회귀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코로나 정국과 맞물려서 발생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한 흑백갈등이라는 억압된 공포가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드는 시도, 즉 코로나19의 공포가 흑백갈등이 아닌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와 폭력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는 것은 익숙한 구조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린다.

이처럼 여러모로 코로나19를 둘러싼 공포와 그에 대한 반응은 이전의 재난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뉴 노멀을 말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상황임을 지적하듯이, 코로나19의 공포는 이전과 다른 면이 있다. 코로나19의 특징은 그것이 팬데믹(pandemic)인 만큼 인포데믹(infodemic)이라는 점에 있다. 2020년 2월 15일 뮌헨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사무총장인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雷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는 “우리는 전염병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포데믹과 싸우는 중이다. 가짜뉴스가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고, 더 쉽게 전파되고 있다. 그리고 바이러스만큼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분열과 부조화의 어두운 행로로 향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물론 인포데믹이라는 단어 자체가 2003년에 만들어진 것처럼, 코로나19 이전에도 루머나 황색언론 혹은 정치적 선전 등으로 전염병의 공포를 확대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시도는 존재했다. 하지만 특정집단이 정보의 유통을 주도하였기에, 그 근원지를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제거가 가능하였다. 또한 인적교류가 중단된 경우에 정보가 공동체를 넘어 다른 곳으로 전파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SNS나 개인 미디어를 기반으로 정보의 유통이 집단과 개인의 구분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결과적으로 근원지 파악은 힘들고, 유통의 통제는 더더욱 어렵다. 또한 인적교류가 없는 상황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정보는 경계 없이 전해지기에

전염병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다양한 근원지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나오고 수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정보는 근거 없는 공포를 자아내고, 예측하기 힘든 패턴의 혐오와 폭력을 일으킨다. 어쩌면 팬데믹으로서의 코로나19는 백신으로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인포데믹으로서의 코로나19는 “억압된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분열과 부조화의 어두운 행로로 향하게 될 것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바이러스는 변종이 계속 등장하고, 백신개발은 아직도 요원하고, 경제적 폐해는 견갑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는 현 팬데믹 상황에서 인문학적 대응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물론 교육과 치유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처럼 팬데믹의 위세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결국 의료와 경제가 가장 중요한 분야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인포데믹에 대해서, 특히 인포데믹으로 인한 근거 없는 공포에 대해서는 인문학적 대응은 가능하면서도 필요해 보인다. 가짜 정보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흔히 말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그러한 방법이 과연 효과적이라는 확신을 갖기 힘들다. 가짜 정보의 유통력이 더 강하고, 반면 사실적 정보는 한 걸음 늦거나 전달력 자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뉴스매체들이 정치적 성향을 내세우며 사실이 아닌 사실의 해석에 집중하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짜 정보에 더 힘을 실어줄 때도 있다. 정치적 해석은 또한 정치인들의 개인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재차 전파되기에, 사실에 근거한 정보는 그 영향력에서 뒤쳐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인포데믹을 또 다른 정보로 막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정보끼리의 싸움에서 혐오와 폭력을 유발하는 감정적 정보를 이길 방법은 희박해 보인다.

하지만 가짜 정보의 대적할 다른 방법이 있다. 빠른 속도의 전달력과 단명성이라는 정보의 특징을 십분 활용한 가짜 정보의 반대편에는 느린 속도의 전달력과 영속성이라는 특징을 강조하는 글이 있다. 바로 인문학적, 특히 문학이다. 책을 꼼꼼히 읽는 행위는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느리게 읽으며 찾을 수 있는 의미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찾아가며,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독서의 특징이다. 주변의 속도가 어떠하든 책을 읽는 행위는 자신 만의 속도를 찾아가고 유지하는



행위다. 그렇기에 바쁜 지하철에서도, 시끄러운 카페에서도, 모두가 잠든 밤에도 독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만의 시간성(temporality)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바로 독서다. 이처럼 시간성을 만들어내기에 독서의 효과는 영속성을 지닌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세세한 기억이 사라져도 책에서 찾은 의미와 감동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기에 좋아했던 책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마주할 때, 낯설게 느끼면서도 반가운 것이다. 정보는 그럼 경험을 주지 않는다. 이처럼 독서의 경험은 인포데믹이 만들어내는 급박한 현실, 그리고 그 공포를 멀리하는 시간성을 어디에 있든지 가능하게 해준다. 직접적으로 공포를 다루는 장르인 고딕소설에서 독자들이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한다는 점은 독서의 특징을 확인시켜 준다. 공포문학비평의 대가인 데이비드 펀터(David Punter)에 따르면,

고딕은 현실에서의 도피가 아니라 현실의 해체와 분해로 나타난다. 독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해체된 현실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정신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추측에 작품 내용을 대입해보고 텍스트의 자의식적인 놀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85).

무서운 이야기를 읽으면서 현실에서 잠시 떠나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작품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함으로써 작품이 현실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독자의 일이라고 펀터는 말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세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현실을 재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펀터의 말은 비단 고딕소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능동적인 독서는 모든 문학 읽기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팬데믹이자 동시에 인포데믹이라면 독서를 통해 천천히 읽는 경험, 그리고 독자로서 정보의 시간과 다른 자신만의 시간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독서의 이런 특징은 이미 논의된 바가 있다. “지속적 시간은 독서와 삶 모두의 특징이다”라고 말하며, 영문학자인 폴 앰스트롱(Paul Armstrong)은 독자반응 이론의 선구자인 울프강 이저(Wolfgang Iser)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92). 이저는 “독자는 텍스트를 살아있는 이벤트로 경험한다... 독서는 경험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그 이유는 “의미 자체가 시간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Armstrong 92). 하지만 암스트롱은 이 저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서의 시간성을 신경과학적 측면에서 입증하고자 한다. 그는 “자극의 타이밍과 자극의 신경적 통합의 차이는 인간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생명체를 특징 짓는 시간적 분열이다. 두뇌의 인지과정의 비동시성(nonsimultaneity)은 삶의 고유한 시간적 불균형의 한 측면이다”라고 설명한다(101). 즉, 무언가를 인지하는 과정은 두뇌에 시간적 불균형을 자아내고,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이해인 것이다. 따라서 이해는 두뇌가 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정과정은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던 “가상 현재”(specious time) 혹은 양리 베르그송(Henri Bergson)의 “지속”(duration)과 같이 가상의 폭을 만들어내어 자극과 반응을 순차적으로 잇는 과정이다. 즉 두뇌 스스로 시간성을 만들어내어 이해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처럼 불안정한 시간자는 독서를 포함한 우리의 의미생성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지과정의 시간적 불안정성은... 미학적이면서 문화적인 현상에 중추적”이라고 암스트롱은 말한다(102). 덧붙여 암스트롱은 반복적 독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독서 경험은 두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영향이 무엇인지, 어떤 미학적 그리고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지는 흥미롭게도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감수성이 무뎌진다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생성하는 반복은 그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심지어는 습관의 형성으로 가능한 즐거움도 있다.... 습관형성 반복은 근본적으로 양가적이고 정반대의 결과, 즉 반응성의 감소나 고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적으로 나쁜 일은 아니다. 습관화의 무의식은 미학적 즐거움의 신경적 기반 일 수 있기 때문이다
(111-12).

흔히 독서의 중요성은 이해력, 비판력, 창의력 등을 함양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되곤 한다. 하지만 암스트롱의 말처럼 습관적인 반복적 독서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면, 천천히 읽는 행위만으로도 자신만의 시간성을 형성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천천히 읽는 독서 습관을 통해 인포데믹에 대처하자는 의미에서, “느린 독서”(Slow Reading)를 제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이후에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TV에 책을 읽고 해설해주는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매체의 특성상 프로그램은 깊은 이해와 면밀한 분석은 빠른 속도로 전할 수밖에 없다. 한 권의 책을 읽는 보통 사람이 읽는 속도에 맞춰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상상하기 힘들다. 문제는 그처럼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이해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를 시청자가 수용할 만한 내용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미 통용되는 개념과 논리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작품이 다음에도 비슷한 키워드가 반복되고, 같은 윤리적 메시지가 강조되고, 특정한 방식의 접근법이 되는 경우가 흔한 이유다. 반면 “느린 독서”는 좀 더 다른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 기후변화라는 재난의 목전에서 이전과 다른 세계관과 인과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다른 읽기를 강조하며 19세기 소설을 논의하는 타니 영 죄(Tina Young Choi)와 바바라 렉키(Barbara Leckie)는 “느림”(slowness)을 강조한다. 이들은 “느린 인과론”(slow causality)이 “인간과 지질학적 시간성을 조화시키며 불완전한 증거가 좀 더 완전한 이해를 보조하도록 하는 전략적 방법론으로서의 서사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567). 기후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느림”은 19세기 소설에만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 기준의 방식과 다르게 작품을 읽고 새로운 인과관계를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것은 “느린 독서”的 이차적 목표다. 사실 급변하고 위급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러한 인과관계로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 당장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급박한 팬데믹과 혼란스러운 인포데믹 상황에서 인문학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바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에 “느린 독서”를 제안하며 글을 마친다.

Works Cited



- Armstrong, Paul B. *How Literature Plays with the Brain: The Neuroscience of Reading and Art*. Baltimore: Johns Hopkins UP, 2013.
- Choi, Tina Young and Barbara Leckie. "Slow Causality: The Function of Narrative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Victorian Studies* 60.4 (2018): 565–87.
- Girard, René. *Violence and the Sacred*. Trans. Patrick Gregory.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77.
- Punter, David. *The Literature of Terror: The Gothic Tradition*. Vol. 1. Harlow: Pearson Education Limited, 1996.
- Spincer, André. "Coronavirus and the Politics of Disgust." *New Statesman*. 31 Mar. 2020.
- "UN Tackles 'Infodemic' of Misinformation and Cybercrime in Covid-19 Crisis." Department of Global Communications. United Nations.
<<https://www.un.org/en/un-coronavirus-communications-team/un-tackling-%E2%80%98infodemic%E2%80%99-misinformation-and-cybercrime-covid-19>>